

다쓰노고젠 신사

다쓰노고젠 신사는 유노쓰를 대표하는 신사로서 마을이 번영하는 토대가 되었던 바다와 온천과 관련된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해상의 안전과 무병장수, 그리고 입욕의 건강 효과를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사가 창건된 것은 1532 년이지만, 실제로 이 장소는 그보다 한참 전부터 숭배의 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작은 본전 바로 위의 절벽에는 큰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바위가 포효하는 용으로 여겨지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먼 고대에는 바위나 나무 등 자연적인 조형물에 신이 깃든다고 믿고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물 안에 신을 모신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절벽 기슭에 있는 배전은 신토의 신들을 기리는 무용인 가구라를 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미 가구라는 지금도 지역에서 친근하게 여겨지는 민속예능입니다. 배전에서 신성한 춤이 공연되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배전 내에 전시된 배 등을 모티브로 한 에마(소원을 적어서 신사나 사원에 봉납하는 목판)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